

하준영 “필승조 향해 이 악물고 던진다”

KIA타이거즈 좌완 투수

데뷔 2년... 지난해 14.2이닝 소화
돌직구 위해 증량·하체 집중 훈련
캠프 연습경기서 강타자 경험
“직구 좋아져 시즌 자신감 얻어
양현종 선배 보여 많이 배웠다”

힘을 더한 KIA 타이거즈의 좌완 하준영이 '기회의 마운드'를 두드린다.

KIA의 오랜 고민 중 하나는 '좌완'이다. KBO 리그를 대표하는 좌완 양현종을 보유하고 있지만 화려한 왕조 역사에도 원손으로 공을 던지는 투수가 귀했다. 지난 시즌에도 확실한 좌완으로 활약한 이는 양현종과 임기준 정도에 그쳤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선발은 물론 불펜까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KIA는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하준영을 주목했다.

하준영은 지난 시즌 성남고를 졸업하고 프로에 데뷔한 2년 차 선수다.

지난 시즌 15경기에 나온 그는 14.2이닝 16피안타(3피홈런) 8볼넷 12탈삼진 15실점, 9.20이라는 평균자책점을 남겼다.

기록은 좋지 못하지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어린 투수는 '경험'이라는 좋은 가르침을 얻었다.

하준영은 지난 마무리캠프를 지나 이번 스프링캠프를 치르면서 빠른 성장세로 코칭스태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시즌 필승조였던 임기준이 부상으로 캠프 출발이 늦어졌던 만큼 하준영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컸다.

그리고 그는 일본 히로시마, 요미우리 등 강팀들과의 연습 경기에 잇달아 투입되면서 좋은 경험을 쌓았다.

하준영은 "(강팀들과 경기 해보니) 타자들이 확실히 수준이 높다. 잘 던졌는데 타자들이 잘 치기도 했다"며 "시즌 들어가면 강한 상대들을 만나게 되는데 강팀들과 미리 상대해본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어려운 상대와 부딪히면서 성장한 하준영에게 '욕심'은 또 다른 성장 원동력이다.

하준영은 "욕심이 안 난다는 건 거짓말이다.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악물고 하고 있다"며 "확실히 작년보다는 몸이 많이 올라온 것 같다"고 언급했다.

좌중우돌 첫 시즌을 교훈 삼아 하준영은 확실하게 이번 시즌을 준비해 왔다.

하준영은 "비시즌부터 웨이트에 집중했다. 캠프 와서도 많이 하니 몸이 많이 올라온 것 같다"며 "체력적인 부분에 신경 썼다. 지난해 스피드가 아쉬웠다. 처음에는 스피드가 낮았는데 체력적으로 힘이 떨어지니까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다. 웨이트를 하면서 체중관리도 해서 3kg정도 늘렸다"고 언급했다.

체력을 발판 삼아 '스피드업'에 신경 쓰고 있는 그는 '각도'에 변화도 했다.

하준영은 "기술적으로는 직구 각도를 신경 쓰고 있다.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직구 구위가 좋아져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변화구는 체인지업이 가장 자신



'좌완 가움'에 시달리는 KIA 타이거즈 마운드에서 하준영이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하준영이 지난 2월 14일 일본 오카나와 우리소에 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연습경기에서 공을 던지고 있는 모습.

있다. (체인지업이 좋은) 양현종 선배가 마운드에서 던지는 것을 보면 배울 점도 많고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캠프에서 '막내'였던 하준영은 이번에는 김기훈·장지수·홍원빈 등 세 명의 후배와 함께 캠프를 보냈다. 그는 선배라는 책임감과 기회라는 기대감 속에서 지난해와 다른 2019시즌을 그리고 있다.

하준영은 "후배들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어울릴 수 있어서 좋다. (유승철 형과) 둘이 했던 것을 5명이 하니 훨씬 더 수월하기도 했다"며 "욕심을 가지고 올 시즌 제대로 준비하겠다. 시즌 풀타임을 뛰는 게 목표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소외계층 초·중·고 선수에 '야구 장학금'

KBO 총 80명에 4억5600만원... 내달 5일까지 신청 접수

KBO가 소외계층의 초·중·고 야구선수들을 위해 '유소년 야구장학금'을 지원한다.

유소년 야구장학금 지원 사업은 야구발전기금을 활용해 이뤄지며, KBO리그가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회 공헌 사업이다.

KBO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생 29명, 중학생 30명, 고등학교생 20명 등 총 79명의 소외계층 야구 꿈나무에게 4억524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유소년 야구장학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초등학교생과 중학생 각각 30명, 고등학교생 20명 등 최대 80명을 선정해 이뤄진다. 매달 초등학교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교생 70만원씩 총 4억5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등록된 초·중·고등학교 야구선수 중 지난해부터 KBSA 또는 한국리틀야구연맹에 선수로 등록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교의

경우는 4학년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

수혜자 선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1~3급)가정, 다자녀(18세 이하의 3자녀 이상)가정 순으로 하며, 기타 생활 형편, 야구성적, 학업성취도, 인성 및 교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한다.

야구장학금 신청은 내달 5일까지이며, 우편접수(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78 KBO 야구회관 6층 육성팀)만 가능하다. 신청 양식 및 기타 내용은 KBO 홈페이지(<http://www.koreabasebal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다사다난' 쇼트트랙 대표팀 유종의 미 거둔다

오늘부터 불가리아 ISU 세계선수권
김건우·김예진 이탈... 계주 조정
종합 3위내 들어야 태극마크 유지

쇼트트랙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다사다난했던 2018-2019시즌을 마무리한다.

심석희(한국체대)와 최민정(성남시청), 임효준(고양시청), 황대현(한국체대) 등 남녀 10명의 쇼트트랙 대표팀은 8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쇼트트랙 선수들에게 이날 전국남녀중빙종합대회와 내달 대표 선발전이 남긴 했지만 대표팀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나서는 국제대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분위

기에서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출국 직전 대표팀의 김건우와 김예진(이상 한국체대)이 진천선수촌 출입 규정을 어겨 퇴촌 처분을 받으면서 태극마크도 반납해야 했기 때문이다.

세계선수권대회 계주 멤버인 두 선수의 출전이 불발되면서 대표팀은 차순위인 박지원(한국체대)과 최지현(전북도청)을 급히 합류시켰다.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월드컵에 함께 출전하면서 계주 손발을 맞춰보긴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선수가 변경되면서 어느 정도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표팀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최대한 추슬러 시즌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다.

남녀 대표팀의 '쌍두마차'는 건재하다. 지난 대회에서 4관왕에 오르며 종합 우승을 차지한 최민정은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최민정은 이번 시즌 월드컵 과정에서 발목을 다쳐 컨디션이 저하되기도 했으나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우승하며 몸 상태를 점차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후에도 흔들림 없이 질주를 이어간 심석희도 동계체전을 건너뛰고 세계선수권을 위해 컨디션을 조절해 왔다. 심석희는 지난달 마지막 월드컵에서 감기 증세로 기권했으나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남자 대표팀 간판 임효준과 황대현도 이번 시즌 월드컵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량을 과시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김지유와 이준서가 개인종목에 출전하며 김건희와 홍경환이 박지원, 최지현과 함께 계주에서 힘을 보탠다.

대표팀 선수들은 지난 3일 출국해 현지 적응에 나섰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합 3위 내에 든 남녀 1명씩의 선수는 치열한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치지 않고 다음 시즌에도 태극마크를 유지하게 된다.

/연합뉴스

배드민턴 손완호 '올림픽 금을 향하여'

지난해 11월 홍콩 오픈 이어 1월 말레이시아 선수권 우승 '순항'

"올해 출발을 잘했어요."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의 망령 손완호(31·인천국제공항)는 지난 1월 국제대회 2019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면서 2019년 시즌을 힘차게 출발했다.

지난해 11월 홍콩 오픈 정상에 오르면서 잡은 상승세를 잘 이어나갔다.

6일 영국 버밍엄에서 개막하는 전영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출격을 앞둔 손완호는 "2020 도쿄 올림픽을 향한 레이스가 시작했다. 올해는 올림픽을 목표로 두고 달릴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국가대표 13년 차 손완호에게 도쿄 올림픽은 가장 뜻깊은 올림픽이 될 전망이다. 생애 마지막 올림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 런던 올림픽, 2016 리우 올림픽에도 출전했지만, 기대했던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다. 남자단식 세계랭킹 5위인 손완호는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



고 강조했다.

손완호는 2019시즌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전영오픈에 나선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손완호는 올해 한국 최초 전영오픈 남자단식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